

국내 공공공사의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외적으로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건설 수요의 고도화, 프로젝트의 대형화, 공사 여건의 복잡 다기화 등 건설 환경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시장 환경의 변화는 단순 노동 집약적 공사보다는 기술 집약적 공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 방식 역시 전통적인 설계 시공 분리 방식보다는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 또는 턴키 등 종합력을 요구하는 발주 방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그간 국내 건설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을 대형 공사나 기술 집약적 공사에 적용하여 오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이 계약 방식 본래의 장점들이 잘 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시공 일괄 방식은 설계시공의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효용도를 인정받은 계약 방식이다. 이러한 일괄 방식은 공사의 특성, 규모, 발주자의 역량, 일괄 시공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 방식으로, 특히 민간 부문에서 발전 활성화되어 온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정부 주도하에 공공공사에 이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계약에서 융통성을 갖고 일괄 시공업자에 재량을 많이 부여해야 하는 일괄 계약 방식의 특성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공사의 특성과의 상충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 설계시공 일괄 방식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의도하고 있다.